

▣ **줌인 동남아시아** ▣  
**Zoom-In Southeast Asia**



**독창적인 짜잉썬마이:  
베트남 옷칠 회화**

Tranh Son Mai:  
Lacquer Paintings of Vietnam

배양수\*  
Yang Soo BAE

베트남이 오랜 동안 닫혀있던 문호를 개방하면서, 수교 이전부터 일부 한국의 미술상들이 베트남을 오가며 베트남 미술품을 국내에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미술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베트남 회화 전시회가 여러 차례 열렸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시회는 대부분 유화나 수채화 전시회였다. 그런데 베트남은 회화분야에서 아주 독특한 장르를 만들어 냈는데, 그것은 옷칠을 이용한 회화작품이다. 베트남에서 현대 회화의 시작은 1925년 베트남 회화의 선구자였던 남썬(Nam Son: 1890-1973)이 프랑스 미술 대학 교수의 지원으로 인도차이나미술전문대학을 설립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학 안에는 베트남 전통 옷칠공예를 연구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곳에서 베트남 옷칠 그림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남썬은 1931년부터 1935년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미술 전시회에서 연속 수상을 하기도 했고, 1943년에는 일본에서도 상을 받았다. 그는

\* 부산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 교수, baeyes@pufs.ac.kr

교수로서 많은 재능 있는 후학을 양성하여 베트남 현대 회화를 확립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옷칠공예(회화)가 중국, 한국, 일본에도 있지만 베트남만의 독창적인 것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후학들을 독려하였고, 마침내 독특한 베트남의 옷칠을 이용한 회화를 창조해냈다.

베트남의 옷칠 회화는 짜잉썬마이(tranh son mai)라고 하는데, ‘짜잉’은 그림을, ‘썬’은 칠(페인팅), ‘마이’는 연마하다, 갈다는 뜻이며 직역하면 ‘옷칠을 연마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의 옷칠은 전통적으로 금속이나 목공 도장재로 널리 사용되었고, 특히 사찰이나 궁전 등 고급 건축물에 사용되었고, 불상이나 제사용품 등은 물론 바구니 같은 일상용품에도 사용되었다. 주로 붉은색 계통이나 노란색 계통의 칠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러한 옷칠 기술은 정확한 출현 시기를 알 수 없으나 아주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고, 칠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마을이나 거리가, 비록 부침은 있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도 베트남 옷칠 공예품은 외국 관광객들 특히 서양 관광객으로부터 호평을 받는 상품이다.

옷칠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옷나무의 진인데, 옷나무 껍질에 상처를 내면 유회백색의 수지가 나온다. 이것이 공기와



<그림 1> 옷칠 회화의 초기 작품으로 붉은 색과 노란 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림 2>  
푸터의 옷나무 숲

접촉하면 흑색으로 변하고, 다시 이것을 장기간 보관하면 수분과 고무질이 가라앉고 옷칠이 상부에 고이는데, 윗부분에 있는 가장 맑은 것이 최상품이며 투명도가 떨어지는 것은 저급이다. 상급품은 귀한 목재의 도료로 사용되고 저급품은 배나 일상 용기 등의 도료로 사용되었다.

베트남에서 알아주는 옷나무 진은 하노이 서북쪽에 위치한 푸터에서 생산되는 것을 최고급으로 여긴다. 근래에 들어 남부지역에서 옷나무 재배에 성공하였지만 품질은 푸터(Phu Tho) 것만 못하다고 한다.

옷나무 진을 가공하는 것은 처음 채취한 수지(생칠)를 용기에 넣고 저어 상온 보관하면 검은 색으로 변한다. 이러한 과정은 탈수와 산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정제하여 최종 제품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도료뿐만 아니라 금, 은, 주석 등의 접착제로도 사용한다고 한다.

색깔은 다양한 종류의 붉은색과 파란색 안료를 섞어서 만들고, 그림에 입체감을 넣는 동시에 색을 표현하기 위하여 금, 은, 주석과 조개껍질, 계란껍질 등도 사용한다. 예를 들어, 흰색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계란껍질을 사용하고, 조개껍질도 그것이 나타내는 색깔을 표현하면서 입체감을 주는데 사용된다.

옷칠 회화가 탄생된 것은 우연이었다. 인도차이나 미술전문대에서

베트남 전통 옷칠을 공부하던 학생들이 공예품에 옷칠 연습하면서 옷칠이 잘못된 부분은 말렸다가 다시 칠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었고, 그러나 보니 옷칠이 너무 두꺼워지고 울퉁불퉁해지게 되었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 표면을 갈아내게 되었는데, 표면을 갈다보니 그 옷칠 뒤에 숨겨진 신비한 그림이 나오는 것을 발견한 것이 베트남 옷칠 그림의 시작이 된 것이다.

베트남의 전통 옷칠은 얇게 칠하고 광택을 내는 것이었는데 비해, 옷칠 그림은 여러 번 두껍게 칠하고 연마를 통해서 필요한 그림을 얻는 방식이었다. 전통 옷칠의 연습과정에서 새롭고 독특한 베트남의 옷칠 그림이 탄생한 것이다.

그림을 그리고 다시 습도가 높은 창고에서 말리고 또 다시 그 위에 그림을 그리고 다시 말리고 그리는 과정을 반복한 다음, 연마하기 때문에 갈아낸 뒤에 어떤 그림이 나올지를 예상하는 것도 어려웠다. 또한 연마 기술 역시 어려운 작업이다. 너무 많이 갈아도 안 되고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만큼만 갈아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공이 들어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옷칠 그림을 처음 시작한 화가들로는 쩌짱쨌, 응웬강, 쩌반 쨌, 응웬자찌 등이 있다. 이러한 초기의 화가들은 옷칠 그림을 그릴 때 두껍게 옷칠을 한 다음에 연마를 통해서 그림이 나타나도록 한 후 광택을 냈다. 이렇게 그린 그림은 얇게 칠하고 광택을 내지 않은 그림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났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과연 사실적인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중반 사이에 베트남 옷칠 그림은 여러 화가들에 의해 사실적인 그림을 그려내게 되었고, 이는 베트남 회화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그림 3> 응웬짜지의 대표적 그림

초기의 베트남 옷칠 그림이 흑백이나 붉은 색 계통을 많이 이용했다면 1940년대 중반에서 50년대 중반에 이르면 녹색을 사용하여 산과 숲을 그려내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천연 안료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없었으나 여러 화가들의 노력을 색깔이 더욱 풍부하게 되었다. 색깔의 다양함과 더불어 또한 작품 수도 늘어났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프랑스와의 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소재로 삼는 정치적 선전성이 강한 작품들이 나오게 된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작품 수에서는 물론 내용면에서도 다양하게 발전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로, 베트남 농촌이나 명승지의 모습 등 베트남 현실을 그린 작품과 전쟁에 나간 용감한 여성의 모습, 행군하는 군인의 모습 등과 같은 선정용 작품들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후 미국과의 전쟁 기간 동안에는 좀 침체된 듯 보였고, 이후 개혁정책을 표방한 1980년대 후반부터 옷칠 그림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그림 4> 응웬강의 대표작

베트남 옷칠 그림은 베트남의 옷나무 진을 이용해서 베트남의 민족성을 잘 나타낸 베트남적인 현대 회화의 한 장르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어가고 있다.